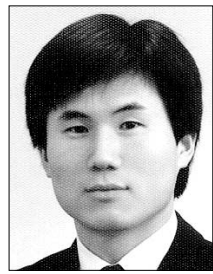


청개구리 우화가 있다. 청개구리는 언제나 엄마의 말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여 엄마의 마음을 무진장 아프게 하였다. 엄마 개구리가 인종을 앞두고 자식의 이런 마음을 꿰뚫고 자신의 시신을 강에 물어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아기 청개구리는 자신의 불효를 깨닫고 엄마 말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단 오면 청개구리는 슬피 운다고 한다. 이 우화를 통해 우리는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배웠다. 하지만 청개구리 우화를 현대인들은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왜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과 반대로 행동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청개구리는 자신이 엄마와 다른 존재임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다른, 즉 개성은 표현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열풍 혹은 몸장 신드롬 역시 개성의 한 표현이다.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갖고 있는 것은 비단 여자들만의 본능이 아니라 남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몸매를 아름답게 그리고 개성있게 가꾸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마음과 노력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문제는 얼굴이나 몸매 등 외적 아름다움과 개성의 추구로 인해 점차 소중했던 내적 미와 개성을 찾아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외도 지상주의로 또 하나의 물질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윤리학 교수

정보사회의 청개구리들

얼굴이나 몸매의 아름다움 추구는 그래프 하 나의 문화 코드로 봐 줄 수 있다. 대인관계나 자신의 행복추구에 있어서 얼굴이나 몸매도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20대 여성 특수강도 수배자에 대한 인터넷 카페 열풍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 코드로 해석하기에는 왠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바로 열풍이나 몸장이라고 해서 그의 행동이나 말이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얼굴이 예쁘다는 사실과 도덕적 범죄는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의 선택과 무관한 듯이, 나의 얼굴이나 몸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자연에 대해서는 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도덕적 평가는 언제나 인간의 자율적인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열풍이나 몸장은 결코 도덕적 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자연적 운일 따름이다. 이것을 혼동하여 얼굴이 예쁘다고 특수강도를 저지른 범죄자마저 도덕적으로 미화한다

면 이는 분명 가치관의 전도라 아니 할 수 없다. 열풍이나 몸장 신드롬 이전에는 얼굴이나 몸매가 아름답지 못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멸이 숨겨져 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몸이나 얼굴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성형외과를 찾고 있지 않는가?

흔히 정보를 홍수에 비유한다. 홍수가 나면 소나 돼지와 같은 가족은 물든지거니와 건물이나 사람까지 그 희생물이 되고 만다. 뿌리가 튼튼해야 홍수를 이길 수 있다. 참된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은 바로 우리를 정보의 홍수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래서 그 홍수의 물결이 흐르는 데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 도덕과 예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방예의지국의 가치관마저도 열풍과 몸장 신드롬에 뿌리 채 뽑혀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의 바다에 표류하다가는 동방예의지국이 '동방예의지국'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도덕과 예의를 숭상하는 아름다운 가치관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보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도덕과 예의를 먹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3년 동국대는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전국 대학 종합평가에서 30위로 떨어졌다. 2002년도에 24위에서 1년 만에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지난해 동국대의 교수 10여명이 타 대학으로 떠났다. 위기를 느낀 교수회가 12월 재직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건만 되면 동국대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해본 교수가 51.1%로 나타났다.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급여문제였다. 서울시내 대학 중 동국대 직원의 급여는 중앙위인 반면 교육의 주체인 교수는 중하위권이기에 때문에 거의 전체 교수가 복지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수 식당이나 휴게소 하나 변변히 없다는 것 등 교수들의 쌓인 불평이 이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수교수 확보와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란

동국대 위기 돌파구 찾아라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최근 <석림>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재학생 수가모임 석림회가 불교학과와 인도철학과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불교대학 수업과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동국대 내에서 불교대학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1%가 위상이 낮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수와 학생의 이와 같은 반응은 반드시 재단이나 학교 당국이 직감하고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일단 불교병원원들을 잘 지어 놓고도 개원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둘째치고라도, 학교 발전에 우수교수 확보는 지상과제인 데도 오히려 쓸만한 교수마저 떠나겠다고 하고 건학의 주체인 불교대학의 학생들이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적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면 무언가 새로운 특단의 처방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건학 100년을 자랑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즈음에 학문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현세 스님이 이사회장에 추대됐다고 한다. 종합대학 승격 후 동문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사장이 된 만큼 동국대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대학발전의 비전을 시급히 제시해 동국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이렇게 들었다 쌀은 생명이다

온갖 정성 두루 쌀이 이 공양을 부족한덕으로 감히 받노니
탐심을 여의어서 허물을 막고 육신을 지행하는 악으로 삼아
도업 이루고자지 아니하노라.

〈오관계(五觀偈)〉

밥: 곡류 따위를 익혀 끼니로 먹는 음식. 주로 쌀밥을 일컬음. (이회승 김수민 중 옛센스 국어사전)

한국인에 있어 밥의 의미는 이런 사전적 의미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히 음식의 한 가지가 아니다. 생명 또는 가장 숭고한 노동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밥술가락을 놓았다'는 말은 죽음을 뜻한다. 태아에게 젖줄과 같은 것이 밥이라는 얘기다. '밥줄'이라는 말은 직업 또는 생계 수단의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 '밥'의 의미 반경은 '빵'의 그것으로 갈음될 수 없다.

종교적 희생의례(犧牲儀禮)의 문화인류학적 의미는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보통 희생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수(犧牲獸) 그것을 행하던 당시 가장 귀한 제물이었음은 분명하다. 우리 민족에게도 밥은 그런 것이었다. 밥이 제상이나 수라상에 오르면 '메'가 되고, 쌀이 부쳐짐 전에 바쳐지면 공양미가 된다. 한국인에 있어 밥(쌀)은 생명의 등가물이자 가장 귀한 밥의 상징이었다.

이런 밥의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안달하는 정부로부터는 국제 국가 발전의 걸림돌 취급을 당하고 있다. 농업개방 불가론자들이 말하는 벼농사의 비교역적 가치 이전에, 모두를 살리는 공양물로서 쌀의 생명성에 주목할 때다.

사스, 광우병, 조류 독감의 증언하는 세계화의 허약한 면역 체계를 보라. 우리에게 쌀의 중요성은 세계화·반세계화라는 양극을 넘어선 지점에 있다.

■ 윤재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김태복 장군의 전역

법당건립을 위한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킨 군 사법기관에 맞서 5년여의 법정투쟁을 벌여온 김태복 장군이 1월 27일 전역했다. 전역식이 열린 부대는 군 수사당국에 조사를 받기 직전 사단장으로 몸담았던 번개부대였기에 김 장군의 감회는 남달랐을 것이다. 군 사법기관과 길고 외로운 싸움을 벌인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김 장군은 육군 모부대 지휘관 재임 시절 군불교 발전을 위해 군법당을 건립하는 험악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는커녕 뇌물수사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오랜 기간 소송을 벌이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정리하는 아픔을 겪었다.

김태복 장군 사건은 우리 불교계의 아픔이요 부끄러움의 대표적인 일이었다. 시주금이 뇌물로 변해버린 김 장군 사례는 군불자들의 종교활동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심의 발로로 군법당을 짓고도 죄인이 되는 현실을 보면서 어떤 군불자가 자유롭게 신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나도 군불자 중의 한사람이다. 김태복 장군 사건이 불거져 나온 이후 군법당에 나오는 간부급 불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되었지만, 힘든 과정을 거쳤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 만약 이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군불교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군불교가 오로지 기댈 수 있는 곳은 군 불교를 후원하는 불교계 뿐이다. 불교계가 군불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란다.

정대호/인천시 강화읍

사찰공간은 '문화현장'

최근 사찰을 비롯해 종교시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한 교회에서도 대단히 활발한 문화활동이 펼쳐진다. 그 곳에 다니는 이웃의 자랑은 대단하다. 수영장과 스쿼시 연습장, 헬스장 등을 교회내에 갖추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차례 함께 이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런 때 사찰은 얼마나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사찰에서 문화강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드물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산중사찰은 도심에 있는 종교시설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행법, 문화재 등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충분한 가치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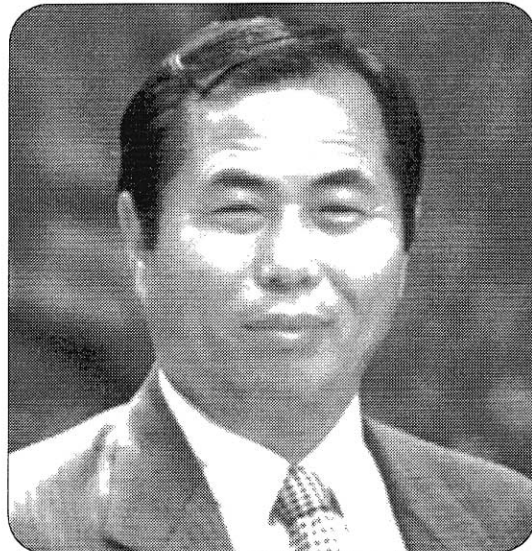
독자의 시

다비식

보석보다
더 빛나게 살아온 자취
새파란 하늘보다
더 새파랗게 살아온 자취
새하얀 구름보다
더 새하얗게 살아온 자취

그 많
그 몸 저 위하여 아니라
중생 위하여
불질러
불질러 밖엔 나타낼 길 없음을
이름하여
아! 다비식

정천수/포항 연일읍 생지2리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통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통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통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배게

02)446-4422

공 연합회 포교사 합격자 고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월 4일 제2회 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실시하고 필기 및 면접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함.

국제불교정법대학	강순심 김옥순 손미숙 이철봉 (4명)
금강불교대학	김길동 김병진 김현옥 문영택 변재홍 서영임 송희자 이선미 정문자 정승민 최성환 황은림 (12명)
동산불교대학	고란일 고정자 권영원 권오복 김경재 김광자 김기성 김기열 김동덕 김상호 김영식 김영욱 김영호 김인섭 김춘복 김현진 맹동재 박성근 박윤택 박창욱 박현주 박철기 서동수 손종근 신영일 안숙이 안인순 안정숙 원정원 유재명 윤윤일 윤희자 이래훈 이병주 이상우 이선자 이은태 이은훈 이흥희 임창우 장복선 정진숙 정희선 정홍식 조국현 전옥희 최덕집 최정환 한승화 홍범희 홍애영 홍양순 (52명)
보현불교대학	강정욱 공병운 김혜연 문영대 박정애 양승동 오영배 이경애 이기명 이두원 이은식 이준태 임영욱 (13명)
불이선원	강신구 김명숙 (2명)
사르나르불교대학	곽임득 구인완 김병철 김복희 김영화 노정란 문원보 문홍일 박기호 박성일 배복희 성병석 성정옥 송임숙 송필배 여미란 이상화 이옥부 임창숙 조순갑 최순근 홍필순 황선택 (23명)
한국불교불교대학	최삼은 (1명)
해동불교범음대학	김권일 (1명)
이 상 (108명)	

- 합격자 등록기일: 2004년 2월 10일 까지
- 연수일: 2004년 3월 6일 ~ 7일
- 연수장소: 대전 월대수련원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등록비 및 연수비: 6만원 (소속학교 접수비람)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전화 02)734-9595